

☞ 십일조연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기택(배숙자) 김병욱(이영숙) 김순석(임영숙) 김준화 박승헌 방성태(차옥자) 석애지(진취부)
송순환 안금자 이성희 이종문 이형규(박정순) 이한울(김순옥) 이항교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최성길(이미향)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 선교연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은미 김병욱(이영숙) 김순옥(이한울) 김준화 김태한 박진재(송명숙) 방현욱(신영신)
배경철(김순화) 안금자 이미지 이종문 임영숙(김순석)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베드로남전도회

☞ 감사연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재 박정순 김경연(손정아) 김병욱(이영숙) 김정연B 김정자 김준화 박진재(송명숙) 박금옥
박복순 박순자 박승헌 박종삼(이명원) 방복순 배경철(김순화)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규) 송다혜
송백현 송철기(김현숙) 심순옥 안금자 임영준(천세혁) 유은자 이경순(배세영) 이기지 이명희 이미지
이미향 이종문 이항교 이효숙 이희순 임영숙 전계자 전순봉 정기성 차옥자 채명엽 최봉순(서진화)
최성현 베희남전도회 후디미여전도회

☞ 일선전재연금

이진우 김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이아린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필 박순자 박승헌 박영석
박준홍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송백현 심순옥 임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미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름 임영경 정서연 정영학 주성학 최봉순 최선미 최희자 하세현 홍유경
홍은민 홍준민 무영

☞ 월장연금

주간 성경연구

1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월왕기상 11장 1 - 13절		
월요일	월왕기상 11장 14 - 25절	목요일	월왕기상 12장 12 - 28절
화요일	월왕기상 11장 26 - 43절	금요일	월왕기상 12장 21 - 33절
수요일	월왕기상 12장 1 - 11절	토요일	월왕기상 13장 1 - 10절

원로장로	이미일 정기성 윤주호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민순 박진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성일
은도장로	방현욱 정명원 문영원 천세혁 방석미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전도사	이필재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 : 권혜정	
	반주자	오르간	장해운
		피아노	지예빈 김민지 김미희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이수경 권혜정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옥 미국: 김대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모잠비크: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W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향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WS, 서울남노회 미래 자원위원회.

2024. 04. 21.

인생의 풍량을 만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41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성도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다다르자 거친 바람과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본문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는 헬리어는 “리알랄스 메갈레 아네무” 인데 “광풍, 큰 바람” 이란 뜻입니다. 누가도 이와 같은 표현을 썼으나 마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즉, “큰 지진” 이라는 표현을 써서 큰 광풍이 일어나고 난 당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에서 큰 지진을 만난 듯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풍량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어떻게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볼는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외침은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곤히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다 뒤통이 되지 않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께 좀 더 일찍 도움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타 일어나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니다. 제자들을 떠나 이 풍랑 부는 바다에 그들을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역경에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비와 긍휼을 믿고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풍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큰바람, 광풍의 시련에서 건져 주시고 잔잔한 항구에 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풍량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 풍랑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는 헬리어는 “시오파, 페휘모소” 인데, 전자는 현재 명령형을, 후자는 현재 완료 명령형을 사용하심으로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 권세로 명령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왕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전에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찌하여 아직 믿음이 없느냐?’**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배에 함께 있지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폭풍 속을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의 풍랑을 만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인생의 풍량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는 데는 돈도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 당황하며 힘겨워합니다. 그때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만을 보는 외적인 눈에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는 내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SINCE 1975

No. 50 - 17

2024. 04.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이사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영준 장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진우 목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진우 목사
묵도 (Silent Prayer)	합필쿠아찬양대
신앙고백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Praise)	양 찬송가 348(통388)장 마귀들과 싸움지라 다 같이
대표기도 (Prayer)	[1부]오동호 집사 [2부]배경철 장로 [3부]윤영준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마가복음 5장 1~20절(신약 p.60) 인도자
찬양 (Anthem)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이 [3부] 곤한 내 영혼 편이 쉽 곳과(정진성) 합필쿠아찬양대
설교 (Sermon)	교 —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 — 이진우 목사
헌금봉헌 (Offering)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다 같이
새신자환영 (Introduce new comer)	다 같이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이진우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이진우 목사
찬양 (Praise)	양 찬송가 352(통390)장 십자가 군병들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예배후찬양 (Marching on Prase)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교회는 **계역계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후 3시	인도: 이진우 목사
찬양	양 ————— 하나님께 찬양을 —————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양	다 같이
기도	오동호 집사
찬양	브라카찬양단
광고	인도자
성경봉독	잠언 6장 12~19절(구약 p.915) ————— 인도자
설교	교 —————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 이진우 목사
찬양	다 같이
축도	이진우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진우 목사
찬양	다 같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장 9~14절(신약 P.141) ————— 인도자
설교	교 ————— 구원자 예수 ————— 이진우 목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0 로뎀나무
주일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본당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로뎀나무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망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늘(24일) 찬양예배는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 [교회 설립 49주년 설립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
다음 주(5/5일)은 교회설립 49주년 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는 교회설립 49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 [초원/목장 연합예배]
다음 주일(5/5일) 찬양예배는 5월 초원/목장 연합예배로 합니다. 3시에 본당에서 모이신 후 초원별로 이동하여 예배를 하오니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40일 연속 금식기도]
5월 17일 성령강림주일까지 40일 연속 금식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민족을, 주린 영혼에게는 채워주심을" (시107:9)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순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책]
4월의 책은 "예배"(규장/A.W. 토저)입니다. 계시판을 참고하시어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 신청시 9,000원(정가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4.5월 교회 행사 안내

4월 10일(수)-5월19일(주일)	2024년 상반기 40일 연속 금식기도
28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5월 5일(주일)	설립49주년 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
12일(주일)	아버지 주일
13일(월)-17일(금)	다락방 기도회
18일(주일)	성령강림주일/스승의 주일/교육위원회 헌신예배
23일(목)	교구신상기도회
28일(주일)	부부주일/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초원/목장 연합예배 찬양예배/본당

◎ 담임목사 동정

- 서울남노회 미래자립위원회 28일(주일) 오후 5시 30분 서울남노회 사무실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정영근 청년	오예담 학생	박종삼 장로, 이명원 권사	사랑1 고척11	에스더 여전도회
다음주	최가훈 장로		교회설립49주년	사랑2 계동2 계동3	루디아 여전도회

5월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1주(5일)	최가훈 장로	유현호 집사	임민순 장로	최가훈 장로	초원/목장연합예배	
2주(12일)	김병을 장로	장영주 집사	박권재 장로	김병을 장로	최가훈 장로	장영주 집사
3주(19일)	최상걸 장로	홍정훈 집사	최성현 장로	최상걸 장로	최상걸 장로	김종진 집사
4주(26일)	배경철 장로	김종진 집사	윤영준 장로	배경철 장로	담임목사님	홍정훈 집사